



교회 설립 15주년

복음으로 써 내려가는 우리 교회 이야기

“한 사람이라도 더
은혜의 복음을 듣게 하는 교회”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함에는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사도행전 20:24



대한 예수교장로회

은혜의복음교회

목 차

서 론	7
-----------	---

“교회 설립 15주년·함께 한 15년·함께 갈 15년”

I . 교회는 왜 존재하는가	11
-----------------------	----

첫째는 “한 사람”이다.	12
--------------------	----

둘째는 “더”이다.	12
-----------------	----

셋째는 “은혜의 복음”이다.	13
----------------------	----

II . 첫째, 복음이 선포되는 예배	17
----------------------------	----

1. 예배의 중심은 복음이다.	17
-----------------------	----

2. 종교개혁이 회복하려 했던 것도 말씀 중심의 교회였다.	18
---------------------------------------	----

3. 그렇다면 실제로 어떻게 할 것인가.	19
-----------------------------	----

III . 둘째, 복음을 가르치는 양육	23
-----------------------------	----

1. 성경 속 교회도 가르치는 교회였다.	23
-----------------------------	----

2. 교회 역사는 교육의 중요성을 보여준다.	23
-------------------------------	----

3. 우리 교회의 양육은 어떻게 할 것인가.	24
-------------------------------	----

IV . 셋째, 복음을 나누는 소그룹	27
----------------------------	----

1. 초대교회는 성전과 집을 함께 사용했다.	27
-------------------------------	----

2. 소그룹에서 무엇을 할 것인가.	27
--------------------------	----

3. 소그룹에는 반드시 ‘빈 의자’가 있어야 한다.	27
-----------------------------------	----

V. 넷째, 복음 전파를 돕는 선교	31
1. 교회 역사에서 가장 놀라운 선교 공동체 가운데 하나가 31	
모라비안 교회였다.	
2. 선교는 '가는 사람과 '보내는 사람'이 함께 하는 것이다. ...	32
3.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32
VI. 다섯째, 복음을 실천하는 봉사	35
1. 예수님의 복음에는 긍휼이 있었다.	36
2. 복음전도와 사회적 책임을 서로 떼어 놓을 필요가 없다.	37
3. 교회 안에서 서로를 섬기는 것도 복음적 봉사이다. ..	38
VII. 여섯째, 복음의 대를 잇는 다음세대	49
1. 사사기의 비극은 복음 전승의 실패였다.	49
2. 그러므로 다음세대 사역의 목표를 바꾸어야 한다. ...	50
3. 가장 중요한 다음세대 교사는 부모이다.	50
4. 현실적인 방법	51
결 론	52
VIII. 결국 여섯 가지 사역은 하나이다.	
IX. 그러면 우리 교회의 모든 조직을	
이 질문으로 점검하자.	53
X. 아주 구체적인 실천—'한 사람이 한 사람을'	54
XI. 교회가 목표로 삼아야 할 것은 큰 교회가 아니다. ...	55
XII. 마지막으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	56

서 론

“교회 설립 15주년 함께 한 15년 · 함께 갈 15년”

● 교회의 존재 목적

한 사람이라도 더 은혜의 복음을 듣게 하는 교회

● 교회의 방향

1. 복음이 선포되는 예배
2. 복음을 가르치는 양육
3. 복음을 나누는 소그룹
4. 복음 전파를 돕는 선교
5. 복음을 실천하는 봉사
6. 복음의 대를 잇는 다음세대

● 한 사람이라도 더 은혜의 복음을 듣게 하는 교회

사도행전 20:24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함에는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로마서 1:16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사도행전 2:42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I .

교회는 왜 존재하는가

1. 교회는 왜 존재하는가

교회가 가장 먼저 물어야 할 질문은 이것이다.
“우리 교회가 앞으로 무엇을 할 것인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왜 이곳에 교회를 세우셨는가?”이다.

교회는 건물을 유지하기 위해 존재하는 기관이 아니다.
교회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해 존재하는 단체도 아니다.
교회는 교인들의 친목을 위해 만들어진 공동체도 아니다.

물론 교회에는 건물도 필요하고, 조직도 필요하고,
재정도 필요하고, 친교도 필요하다.
그러나 이것들은 모두 목적이 아니라 수단이다.

교회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며,
하나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 맡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세상에 전하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주신 말씀도 이것이었다.

마태복음 28:19-20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사도행전 1:8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예수님께서서는 교회를 세상으로 보내셨다.
그러므로 교회의 존재 목적을 한 문장으로 표현한다면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다.

“한 사람이라도 더 은혜의 복음을 듣게 하는 교회”

●여기에는 세 가지 중요한 단어가 있다.

첫째는 “한 사람”이다.

하나님에게 사람은 숫자가 아니다. 천하보다 귀한 생명이다.

예수님께서는 수많은 사람을 만나셨지만
한 사람을 소중히 여기셨다.
수가성의 한 여인을 만나셨고,
니고데모 한 사람을 만나셨고,
여리고의 삭개오 한 사람을 만나셨으며,
십자가 옆의 강도 한 사람에게도 구원의 복음을 주셨다.

누가복음 15장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신다.
양 백 마리 가운데 한 마리, 열 드라크마 가운데 하나,
두 아들 가운데 집을 떠난 한 아들을 찾으신다.
하나님의 마음은 잃어버린 한 사람에게 있다.

그러므로 교회도 언제나 물어야 한다.
“지금 우리 주변에서 복음을 듣지 못하고 있는
한 사람은 누구인가?”

둘째는 “더”이다.

교회는 이미 온 사람들만 돌보는
공동체가 되어서는 안 된다.
예수님은 말씀하셨다.

누가복음 19:10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교회는 계속해서 교회 밖을 바라보아야 한다.

셋째는 “은혜의 복음”이다.

우리가 사람들에게 전하려는 것은 종교적 규칙이 아니다.

“착하게 살아라.” “교회에 잘 다녀라.”

“좋은 사람이 되어라.” 이것만으로는 복음이 아니다.

복음은 이것이다.

우리가 하나님께 갈 수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셨다는 소식이다.

우리가 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다 하셨다는 것이다.

우리가 스스로 죄에서 자신을 구원할 수 없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삼일만에 부활하시므로 구원을 이루셨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은혜로 구원을 주신다는 소식이다.

에베소서 2:8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러므로 우리 교회의 모든 사역은

하나의 질문으로 점검되어야 한다.

“이 일이 한 사람이라도 더

은혜의 복음을 듣게 하는 데 도움이 되는가?”

예배도 이것을 위해 존재해야 한다.
양육도 이것을 위해 존재해야 한다.
소그룹도 이것을 위해 존재해야 한다.
선교도 이것을 위해 존재해야 한다.
봉사도 이것을 위해 존재해야 한다.
다음 세대 교육도 이것을 위해 존재해야 한다.

그래서 우리 교회의
여섯 가지 방향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 복음이 선포되는 예배
- 복음을 가르치는 양육
- 복음을 나누는 소그룹
- 복음 전파를 돕는 선교
- 복음을 실천하는 봉사
- 복음의 대를 잇는 다음 세대

이 여섯 가지는 서로 떨어진 별개의 일이 아니다.
하나의 흐름이다.

예배에서 복음을 듣고→양육을 통해 복음을 배우고→
소그룹에서 복음을 나누고→선교를 통해 복음을 전하고→
봉사를 통해 복음을 보여주고→
다음 세대에 복음을 물려주는 것이다.

이 순환이 계속될 때
교회는 진정으로 교회다움을 가진다.

건강해진다.

Ⅱ. 첫째, 복음이 선포되는 예배

II. 첫째, 복음이 선포되는 예배

1. 예배의 중심은 복음이다.

고린도전서 2:2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 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예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들이 감동받았느냐가 아니다.
음악이 좋았느냐도 아니다.
분위기가 좋았느냐도 아니다.
물론 이것들도 중요하다.

그러나 더 중요한 질문은 이것이다.
“오늘 예배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분명하게 드러났는가?”
회중들은 복음을 들었느냐는 것이다.
설교자가 윤리를 말할 수 있다.
가정을 말할 수도 있고, 인간관계를 말할 수도 있고,
돈을 말할 수도 있고, 고난을 말할 수도 있다.
그러나 결국 모든 말씀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하나님의 은혜로 연결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설교는 쉽게 도덕 강연이 된다.

복음적인 설교는 단순히
“다윗처럼 용감하십시오.”라고 끝나지 않는다.
다윗보다 더 큰 다윗이신 그리스도를 보여주어야 한다.
“요셉처럼 인내하십시오.”에서 끝나지 않는다.
고난을 통하여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보여주어야 한다.

● 성경 전체에서 그리스도를 보게 해야 한다.
누가복음 24:27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말한다.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2. 종교개혁이 회복하려 했던 것도 말씀 중심의 교회였다.

종교개혁에서 중요하게 생각한 것은
단순히 교회의 제도를 바꾸는 것이 아니었다.
말씀이 다시 회중에게 들려지도록 하는 것이었다.
성경을 읽고, 성경을 가르치고, 복음을 설교하는 것이
교회의 중심으로 돌아와야 한다고 보았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과 요리문답 전통 역시 성경을
신앙과 삶을 지도하는 유일한 규범으로 강조하면서
교회를 말씀으로 가르치는 공동체로 세우려 했다.
1640년대 작성된 대·소요리문답은 특히 성경의 교리를
교인들과 자녀들에게 체계적으로 가르치는 도구로 사용되었다.
교회가 어려워질 때 우리는 새로운 프로그램부터 찾기 쉽다.
그러나 교회 역사가 보여주는 중요한 교훈은 이것이다.
교회의 진정한 갱신은 언제나
말씀과 복음으로 돌아가는 데서 시작되었다.

3. 그렇다면 실제로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 교회는 예배를 다음과 같이 세울 수 있다.

① 모든 설교에 복음이 선포되어야 한다.

교회를 처음 방문한 사람이

그날 예배 한 번만 참석하고 다시 오지 못한다고 해도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왜 십자가가 필요한지”

“하나님께 어떻게 돌아갈 수 있는지”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 설교자를 위해 이렇게 기도해야 한다.

엡6:19-20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20.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② 새신자가 알아들을 수 있는 예배를 만든다.

교회 안에서만 사용하는 언어가 너무 많으면

처음 온 사람은 소외된다.

“오늘은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하겠습니다.”라고 말할 때도

처음 온 사람에게는 그것이 무엇인지 모를 수 있다.

조금만 설명하면 된다.

“우리가 무엇을 믿는지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이렇게 설명하는 작은 친절이 필요하다.

③ 예배의 문턱을 낮추되

복음의 수준은 낮추지 않는다.

친절하고 편안한 예배를 만들되

복음은 분명하게 전해야 한다.

세상과 비슷해져서 사람을 끌어오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는 들을 수 없는 복음을 분명하게 들려주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

④ 정기적인 초청예배를 갖는다.

예를 들어 분기별 한 번씩

“한 사람에게 복음을 들려주세요 초청주일”을 할 수 있다.

몇 주 전부터 모든 성도가 한 사람의 이름을 정한다.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한다.

식사를 한다.

관계를 맺는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예배에 초청한다.

중요한 것은 행사를 크게 만드는 것이 아니다.

한 영혼을 품는 성도들의 마음을 크게 만드는 것이다.

Ⅲ. 둘째, 복음을 가르치는 양육

Ⅲ. 둘째, 복음을 가르치는 양육

예수님은 **마태복음 28:20**에서

“가서 모든 민족을 교인으로 만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다.

“제자로 삼으라.”고 말씀하셨다.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복음을 듣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

복음을 알아야 하고, 복음대로 살아야 한다.

1. 성경 속 교회도 가르치는 교회였다.

사도행전 2:42을 보면 최초의 예루살렘교회 성도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라고 되어 있다.

신앙은 열심만으로 유지되지 않는다. 배움이 있어야 한다.

열심은 있는데 배움이 없으면 광신으로 흐를 수 있고,

지식은 있는데 은혜가 없으면 교만으로 흐를 수 있다.

그러므로 양육의 목표는 단순한 성경 지식이 아니다.

복음을 알아가고, 복음으로 생각하고,

복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을 만드는 것이다.

2. 교회 역사는 교육의 중요성을 보여준다.

종교개혁 이후

개신교회가 요리문답을 중요하게 여긴 이유도 여기에 있었다.

예를 들어 웨스트민스터 소요리문답의 첫 질문은 유명하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인가?”

답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이것은 단순한 암기 문제가 아니었다.

“나는 왜 사는가?”라는 인생의 질문에

성경적으로 대답하도록 훈련하는 것이었다.

3. 우리 교회의 양육은 어떻게 할 것인가.

교육과정을 너무 복잡하게 만들 필요가 없다.

오히려 명확하게 만들 수 있다.

●1단계 — 샤인코스

샤인코스는 복음기초이다. 새가족은 누구든지 이것부터 배운다.

●2단계 — 성경

성경의 큰 흐름을 가르친다. 성도들이 성경을 조각조각 알지 않고 하나의 하나님의 구원 이야기로 보게 해야 한다.

●3단계 — 제자의 삶

●4단계 — 리더

배우기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을 길러야 한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했다.

디모데후서 2:2

“네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여기에 네 세대가 나온다.

바울 → 디모데 → 충성된 사람 → 또 다른 사람

이것이 제자 훈련의 원리이다.

따라서 우리 교회의 양육 목표는

“공부를 많이 한 성도”가 아니라

“또 다른 사람을 세울 수 있는 성도”이어야 한다.

IV. 셋째, 복음을 나누는 소그룹

IV. 셋째, 복음을 나누는 소그룹

예배에서는 모든 사람의 얼굴을 볼 수 있지만,
한 사람의 얼굴을 볼 수가 없다.

그러나 소그룹에서는 한 사람을 만날 수 있다.
그래서 이런 질문을 할 수 있다.

“요즘 어떠십니까?”

그 순간부터 진짜 관계가 시작될 수 있다. 가족이 된다.

1. 초대교회는 성전과 집을 함께 사용했다.

사도행전 2:46이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초대교회에는 두 공간이 있었다. 성전과 가정이다.
큰 모임과 작은 모임이다. 예배와 교제이다. 둘 다 필요하다.
주일 설교만으로 사람을 변화시키기는 어렵다.
말씀을 삶에 적용하도록 돕는 공동체가 필요하다.

2. 소그룹에서 무엇을 할 것인가.

복잡하게 하지 말자. 네 가지면 충분하다.

가벼운 인사와 터치 — 말씀 나눔 — 서로 기도
— 돌봄(축하와 위로)

3. 소그룹에는 반드시 ‘빈 의자’가 있어야 한다.

상징적으로 빈 의자 하나를 생각하면 좋다.

그 의자는 아직 교회에 오지 않은 사람의 자리이다.

소그룹이 자기들끼리 친해지는 데서 끝나면 결국 폐쇄된다.

그러므로 각 소그룹이 항상 물어야 한다.

“우리 모임에 함께했으면 하는 한 사람은 누구인가?”

그를 위해 기도한다.

교회로 바로 초청하지 않아도 된다.
집으로 초청한다. 식사를 한다. 차를 마신다.
소그룹에 초대한다.
그렇게 관계 안에서 복음을 나눈다.
소그룹은 친교의 종착지가 아니라
선교의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

V. 넷째,
복음 전파를 돕는 선교

V. 넷째, 복음 전파를 돕는 선교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8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선교는 선교사 몇 사람이 하는 특별한 일이 아니다.

교회의 본질이다.

1. 교회 역사에서 가장 놀라운 선교 공동체 가운데 하나가 모라비안 교회였다.

독일 헤른후트의 모라비안 공동체는

매우 작은 공동체였지만 세계 선교에 강한 열정을 품었다.

모라비안 교회의 공식 역사에 따르면

1727년 헤른후트 공동체에 중요한 영적 갱신이 일어났고,

1732년에는 첫 선교사들이 서인도 제도로 파송되었다.

당시 헤른후트 공동체는

약 300명 규모의 작은 공동체였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숫자가 아니다.

교회의 크기가 선교의 크기를 결정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작은 교회도 세계를 품을 수 있다.

2. 선교는 ‘가는 사람’과 ‘보내는 사람’이 함께 하는 것이다.

로마서 10:14-15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
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누군가는 간다. 그러나 누군가는 보내야 한다.

누군가는 기도한다. 누군가는 헌금한다.

누군가는 선교사의 자녀를 돌본다.

누군가는 선교지를 방문한다.

누군가는 전문성을 가지고 돕는다.

그러므로 우리는 선교를

“선교사가 하는 일” 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3.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① 한 가정 한 선교사 품기

각 소그룹 또는 몇 가정이 한 선교사를 정한다.

이름을 알고, 사진을 보고, 가족을 알고,

사역을 알고, 기도 제목을 안다.

그러면 선교가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우리 일이 된다.

② 성도와 다음 세대에게 단기선교 경험을 준다.

단기선교의 목적은 관광이 아니다.

세계 교회를 보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보다 훨씬 큰 일을 하고 계시는구나.”를
경험하게 하는 것이다.

VI. 다섯째, 복음을 실천하는 봉사

VI. 다섯째, 복음을 실천하는 봉사

야고보서 2:15-16은 말한다.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복음은 입으로 전해져야 한다.

동시에 삶으로 보여져야 한다.

우리가 받은 복음은 머릿속에만 머물지 않는다.

복음은 우리의 손과 발을 움직이게 한다.

우리가 먼저 그리스도께 섬김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우리도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이다.

예수님은 말씀하셨다.

마가복음 10:45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러므로 기독교의 봉사는 단순한 자원봉사가 아니다.

그리스도께 받은 은혜에 대한 응답이다.

1. 예수님의 복음에는 긍휼이 있었다.

예수님께서 무리를 보실 때

마태복음 9:36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라고 했다.

병자를 보셨다. 굶주린 자를 보셨다.

소외된 사람을 보셨다.

과부를 보셨다. 아이를 보셨다.

그리고 그들의 고통을 그냥 지나치지 않으셨다.

예수님은 복음을 선포하시면서 동시에 병자를 고치셨고,

굶주린 사람을 먹이셨고, 소외된 사람 곁에 앉으셨다.

그러므로 복음에는 언제나 긍휼의 눈이 있다.

복음을 아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아픔을

이전과 똑같이 볼 수 없다.

“저 사람이 왜 저럴까?” 라고 판단하기 전에

“저 사람에게 무슨 일이 있었을까?”라고 묻게 된다.

“누군가 도와주겠지.”라고 지나가기보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를 생각한다.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서 제사장과 레위인은

강도 만난 사람을 보았지만 지나갔다.

그러나 사마리아인은 달랐다.

누가복음 10:33-34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차이는 무엇인가?

보고 지나간 사람과 보고 가까이 간 사람의 차이이다.

복음을 실천하는 봉사는 바로 여기에서 시작한다.

고통받는 사람에게 가까이 가는 것이다.

2. 복음전도와 사회적 책임을

서로 떼어 놓을 필요가 없다.

복음을 말하는 것과 복음에 합당한 사랑을 실천하는 것을 서로 반대되는 것으로 생각할 필요가 없다.

교회는 분명히 복음을 전해야 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회개와 믿음을 선포해야 한다.

그러나 동시에 그 복음을 믿는 사람들이
어떤 삶을 사는지도 보여주어야 한다.

교회가 봉사만 하고 복음을 말하지 않으면
일반 사회복지기관과 구별되기 어렵다.

반대로 복음을 말하면서 사람의 실제 고통에는
관심이 없다면 사람들이 묻게 된다.

“당신들이 말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어디에 있는가?”

요한일서 3:18은 말한다.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그러므로 우리는

입으로 복음을 전하고 손으로 복음을 보여주어야 한다.

말씀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설명하고,

우리의 삶으로 그 사랑의 작은 모습을 보여주어야 한다.

3. 교회 안에서 서로를 섬기는 것도 복음적 봉사이다.

봉사라고 하면 우리는 먼저
교회 밖의 어려운 이웃을 생각한다.
물론 그것은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성경이 가장 먼저 강조하는 봉사의 자리는
의외로 교회 공동체 안이다.
바울은 **갈라디아서 6:10**에서 이렇게 말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교회 밖의 사람들을 사랑해야 하지만
동시에 믿음의 가족을 돌보는 것도 중요하다는 것이다.

예수님도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뒤 말씀하셨다.

요한복음 13:14-15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
도 서로 발을 씻어 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교회는 섬김을 받으려 오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 아니다.
그리스도께 섬김을 받은 사람들이 서로를 섬기는 곳이다.
그래서 교회 안에는 수많은 봉사가 있다.
예배 전에 일찍 나와 문을 여는 사람이 있다.
주차를 안내하는 사람이 있다.
처음 온 사람에게 웃으며 인사하는 사람이 있다.
찬양으로 섬기는 사람이 있다.
음향과 영상을 담당하는 사람이 있다.
예배당을 청소하는 사람이 있다.
주방에서 음식을 준비하는 사람이 있다.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사가 있다.

몸이 불편한 성도를 부축하는 사람이 있다.
차량으로 어르신을 모셔 오는 사람이 있다.
꽃을 꽂고 강단을 정리하는 사람이 있다.
헌금을 계수하는 사람이 있다.
아픈 성도에게 전화를 하는 사람이 있다.
장례가 났을 때 함께 밤을 지키는 사람이 있다.
누군가는 사람들에게 보이는데서 봉사하고,
누군가는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자리에서 봉사한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는 중요하지 않은 봉사가 없다.

**① 교회 봉사는 ‘자리’를 맡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섬기는 것이다.**

여기에서 매우 중요한 관점의 변화가 필요하다.

우리는 흔히 말한다.

“나는 주차 봉사를 합니다.”

“나는 식당 봉사를 합니다.”

“나는 교사를 합니다.”

“나는 찬양대를 합니다.”

그러나 한 걸음 더 나아가 생각해야 한다.

주차 봉사의 목적은 자동차를 정리하는 것이 아니다.
예배드리러 온 사람을 편안하게 맞이하는 것이다.

식당 봉사의 목적은 밥을 만드는 것만이 아니다.
성도들이 식탁에서 교제하도록 섬기는 것이다.

교회학교 교사의 목적은 공과를 끝내는 것이 아니다.
한 아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도록 돕는 것이다.

찬양대의 목적은 좋은 음악을 들려주는 것이 아니다.
회중이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돕는 것이다.

안내위원의 목적은 주보를 나누어 주는 것이 아니다.
처음 교회에 온 사람이 낯설지 않도록 환대하는 것이다.

그래서 교회의 모든 봉사는 결국 하나이다.
사람을 섬기는 것이다.
그리고 그 사람을 섬기는 궁극적인 목적은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도록 돕는 것이다.

② 은사는 나를 드러내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교회를 세우라고 주신 것이다.

베드로전서 4:10은 말한다.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똑같은 재능을 주시지 않았다.

노래를 잘하는 사람이 있다.

가르치는 것을 잘하는 사람이 있다.

음식을 잘 만드는 사람이 있다.

기계를 잘 다루는 사람이 있다.

사람을 편안하게 하는 사람이 있다.

행정을 잘하는 사람이 있다.

아이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다.

어르신을 잘 섬기는 사람이 있다.

말없이 뒤에서 일하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다.

이 모든 것이 교회를 세우는 데 사용될 수 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2장에서 교회를 몸에 비유한다.

눈만 있어서는 몸이 될 수 없다.

손도 필요하고, 발도 필요하고, 귀도 필요하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21**은 말한다.

“눈이 손더러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지 못하리라.”

이것이 교회의 원리이다.

강단에 서는 사람만 중요한 것이 아니다.
사람들에게 보이는 봉사만 중요한 것도 아니다.
주일 아침 아무도 오기 전에
예배당 문을 여는 사람도 필요하고,
모두 돌아간 후 쓰레기를 정리하는 사람도 필요하다.
아이 한 명의 이름을 기억해 주는 교사도 필요하다.

교회에 오지 않는 성도에게 전화를 걸어
“무슨 일 있으세요?”라고 물어주는 사람도 필요하다.
교회는 몇몇 사람이 일하고 나머지가 구경하는 곳이 아니다.
모든 성도가 자기에게 주어진 은사로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는 공동체이다.

③ 봉사는 신앙의 소비자에서 제자로 넘어가는 중요한 과정이다.

교회 생활을 오래 해도 계속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다.

“오늘 설교가 나에게 좋았는가?”

“찬양이 내 마음에 들었는가?”

“교회가 나에게 무엇을 해주는가?”

“왜 나를 챙겨주지 않는가?”

물론 교회는 성도를 돌보아야 한다.

그러나 신앙이 성숙하면 질문이 바뀐다.

“교회가 나에게 무엇을 해줄까?”에서

“나는 누구를 섬길 수 있을까?”로 바뀐다.

바울은 **에베소서 4:11-12**에서

목회자의 사명을 설명하면서 이렇게 말한다.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목회자가 모든 봉사를 대신하는 것이 아니다.

목회자는 성도들이 봉사하도록 준비시키는 사람이다.

그러므로 건강한 교회는

목회자가 모든 일을 하는 교회가 아니라 성도들이 각자의 은사대로 사역하는 교회이다.

목회자는 목회하고, 교사는 가르치고, 찬양팀은 찬양하고,

젊은 성도는 어르신들의 손과 발이 되어주고,

장년 성도는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하고,

전문성을 가진 성도는 자신의 재능으로 교회를 돕는다.

그럴 때 교회는 목회자 몇 명의 교회가 아니라

모든 성도가 함께 세워가는 그리스도의 몸이 된다.

④ 교회 안의 봉사도 복음을 보여주어야 한다.

그러나 교회에서 봉사한다고

자동적으로 복음적인 것은 아니다.

봉사하면서 경쟁할 수도 있다.

봉사하면서 인정받으려 할 수도 있다.

“나는 이렇게 많이 하는데 왜 저 사람은 하지 않느냐.”

라고 판단할 수도 있다.

오랫동안 봉사하다가 “왜 아무도 알아주지 않느냐.”며

시험에 들 수도 있다.

그래서 봉사의 동기를 계속 점검해야 한다.

빌립보서 2:3-5는 말한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낫게 여기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복음적인 봉사는

내가 얼마나 중요한 사람인가를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얼마나 귀한 분인가를 보여주는 것이다.

그래서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할 수 있다.

박수를 받지 않아도 할 수 있다.

내 이름이 후보에 나오지 않아도 할 수 있다.

왜냐하면 봉사의 출발이 사람의 인정이 아니라

이미 그리스도께 받은 은혜이기 때문이다.

**⑤ 모든 성도가 ‘한 가지 봉사’를 갖도록
도울 수 있다.**

현실적인 목표를 하나 세울 수 있다.

“예배만 드리고 돌아가는 성도에서
한 가지라도 섬기는 성도로.”

모든 사람에게 많은 일을 맡길 필요는 없다.

오히려 한 가지면 된다.

한 달에 한 번 안내를 할 수도 있다.

한 달에 한 번 교회 청소를 할 수도 있다.

아이 한 명을 위해 매주 기도할 수도 있다.

몸이 불편한 성도에게 전화를 할 수도 있다.

새가족과 한 번 식사를 할 수도 있다.

청년 한 명의 멘토가 될 수도 있다.

한 가정의 어려움을 정기적으로 살필 수도 있다.

봉사의 크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내가 받은 은혜가 다른 사람에게 흘러가고 있는가가
중요하다.

그래서 교회는 성도들에게 단순히

“봉사자가 부족합니다. 신청하십시오.”

라고만 말하기보다 이렇게 질문하면 좋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주신 은사로
누구를 섬길 수 있습니까?”

이 질문이 봉사를 의무에서 사명으로 바꾼다.

VII. 여섯째, 복음의 대를 잇는 다음세대

Ⅶ. 여섯째, 복음의 대를 잇는 다음세대

이것은 선택사항이 아니다.

교회의 존재 이유와 관련된 일이다.

시편 78:5-7

“그들의 자손에게 알리라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후대 곧 태어날 자손에게 이를 알게 하고 그들은 일어나 그들의 자손에게 일러서 그들로 그들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성경에는 놀라운 표현이 나온다.

자손에게 가르치고

그 자손이 다시 자기 자손에게 가르친다.

복음은 반드시 다음 세대에게 전승되어야 할 다음세대의 소망이다.

1. 사사기의 비극은 복음 전승의 실패였다.

사사기 2:10을 보면 충격적인 말씀이 나온다.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부모 세대는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했다.

그러나 자녀 세대는 하나님을 몰랐다.

●왜 그런가?

신앙은 혈통으로 자동 전수되지 않기 때문이다.

성도의 자녀라고 믿음이 생기는 것이 아니다.

복음이 저절로 들어가는 것도 아니다.

교회에 어릴 때부터 다녔다고 거듭나는 것도 아니다.

모든 세대가 지속적으로 복음을 들어야 한다.

2. 그러므로 다음세대 사역의 목표를 바꾸어야 한다.

목표가 “아이들이 교회에서 재미있게 지내게 하자.”에서 끝나서는 안 된다.

물론 재미있어야 한다. 친구도 있어야 한다.

좋은 추억도 필요하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목표는 이것이다.

“우리 아이가 복음을 알고 있는가?”

“예수님이 누구신지 아는가?”

“죄가 무엇인지 아는가?”

“십자가가 왜 필요한지 아는가?”

“은혜가 무엇인지 아는가?”

“자신의 말로 복음을 설명할 수 있는가?”

3. 가장 중요한 다음세대 교사는 부모이다.

신명기 6:6-7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신앙교육을 교회학교 교사에게만 맡기면 안 된다.

일주일은 168시간이다.

교회가 아이를 만나는 시간은 2시간이 되지 않는다.

가정의 영향력이 훨씬 크다.

그래서 교회학교 교육과 동시에 부모 교육이 필요하다.

4. 현실적인 방법

① 부모에게 매주 한 가지 질문을 준다.

예를 들어 이번 주에 부모가 자녀에게 묻는다.

“이번 주에 하나님께 감사한 일이 뭐였어?”

또는 “오늘 설교에서 기억나는 게 뭐야?”

5분이면 된다.

② 세대통합예배를 정기적으로 드린다.

어른들이 기도하는 모습을 아이들이 보게 한다.

아이들이 찬양하는 모습을 어른들이 본다.

신앙은 강의만으로 전달되지 않는다.

보고 배우는 것이다.

③ 장년과 청소년을 연결한다.

교회의 어른 한 사람이

청소년 한두 명의 이름을 기억하고 기도하게 한다.

“시험 잘 보라.”

정도로 끝내지 않는다.

“요즘 믿음생활은 어떠니?”

라고 물어주는 어른이 되어야 한다.

④ 교회 재정에서도 우선순위를 준다.

우리는 말로는

“다음 세대가 중요합니다.” 라고 하면서

실제 예산에서는 가장 뒤로 미룰 수 있다.

예산은 교회의 가치관을 보여준다.

정말 다음세대가 중요하다면 투자해야 한다.

결 론

Ⅷ. 결국 여섯 가지 사역은 하나이다.

다시 정리해 보자.

1. 복음이 선포되는 예배
 - 복음을 듣게 한다.
2. 복음을 가르치는 양육
 - 복음을 알게 한다.
3. 복음을 나누는 소그룹
 - 복음을 살아내게 한다.
4. 복음 전파를 돕는 선교
 - 복음을 멀리까지 전하게 한다.
5. 복음을 실천하는 봉사
 - 복음을 눈으로 보게 한다.
6. 복음의 대를 잇는 다음 세대
 - 복음이 다음 세대로 계속 흐르게 한다.

결국 하나이다.

복음이다.

IX. 그러면 우리 교회의 모든 조직을

이 질문으로 점검하자.

앞으로 새로운 일을 시작할 때 이렇게 질문하면 좋겠다.

**“이것이 한 사람이라도 더
은혜의 복음을 듣게 하는 일인가?”**

예산을 세울 때도 묻는다.

“이 예산이 복음을 위해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가?”

부서를 만들 때도 묻는다.

“이 부서는 복음과 어떤 관계가 있는가?”

행사를 할 때도 묻는다.

“행사가 끝난 후 무엇이 남는가?”

회의할 때도 묻는다.

**“우리가 지금 조직을 지키려고 회의하는가,
사람을 살리려고 회의하는가?”**

이 질문이 분명하면 교회는 복잡하지 않아도 된다.

X. 아주 구체적인 실천 — ‘한 사람이 한 사람’
거창한 것부터 시작하지 않아도 된다.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가
한 사람을 품는 것부터 시작하면 된다.
한 해 동안 한 사람의 이름을 정하고,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한다.
한 사람에게 연락하고 식사를 한다.
한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아플 때 찾아간다.
한 사람을 예배에 초청하고 복음을 들을 기회를 만든다.
한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되면 그 사람을 양육한다.
그리고 그 사람이 또 다른 한 사람을 품게 한다.

이것이 반복되면 어떻게 되는가?
교회는 프로그램으로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이 사람에게서 사람에게로 흘러가는 공동체가 된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전했고,
디모데가 충성된 사람에게 전했고,
충성된 사람이 또 다른 사람에게 전했던 것처럼 말이다.

XI. 교회가 목표로 삼아야 할 것은 큰 교회가 아니다.

우리의 목표는 큰 교회가 되는 것이 아니다.

크면 감사하고 작아도 감사하다.

유명한 교회가 되는 것도 아니다.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교회가 되는 것도 아니다.

우리의 소원은 하나이다.

언젠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가 너희에게 맡긴 복음을 너희가 충성스럽게 전하였다.”

라는 평가를 받는 것이다.

교회의 성공을 예배 인원만으로 판단하면 안 된다.

다른 질문이 필요하다.

- 올해 몇 명이 복음을 들었는가?
- 몇 명이 복음을 이해하게 되었는가?
- 몇 명이 세례를 받았는가?
- 몇 명이 제자로 자라고 있는가?
- 몇 명이 또 다른 사람을 섬기기 시작했는가?
- 몇 가정이 선교에 참여하고 있는가?
- 우리 교회를 통해 지역사회의 누가
실제적인 도움을 받았는가?
- 우리 자녀들이 부모의 신앙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신앙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있는가?

이것이 더 중요한 질문이다.

XII. 마지막으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
그러나 한 가지를 조심해야 한다.
이 모든 것을 우리가 만들어내는 것은 아니다.
우리는 사람을 변화시킬 수 없다.
훌륭한 설교가 사람을 구원하는 것도 아니다.
완벽한 양육 프로그램이 사람을 구원하는 것도 아니다.
좋은 소그룹이 사람을 거듭나게 할 수도 없다.
전도행사가 사람을 구원하지도 않는다.
구원은 하나님께서 하신다.

바울은 말했다.

고린도전서 3:6-7

●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 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우리는 심는다.
물을 준다.
기도한다.
복음을 전한다.
사랑한다.
섬긴다.
가르친다.
기다린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살리신다.
이것이 은혜이다.

그래서 우리 교회의 비전 첫 문장도
“한 사람이라도 더 예수를 믿게 하는 교회”가 아니다.
“한 사람이라도 더 은혜의 복음을 듣게 하는 교회”이다.
왜냐하면 사람을 살리는 것은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복음이기 때문이다.

바울은 말한다.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붙들 것은 복음이다.
사람이 많아져도 복음을 붙들고,
사람이 줄어도 복음을 붙들고,
형편이 좋아져도 복음을 붙들고,
교회가 어려워져도 복음을 붙들어야 한다.
예배의 중심에 복음이 있게 하자.
교육의 중심에 복음이 있게 하자.
소그룹의 중심에 복음이 있게 하자.
선교의 중심에 복음이 있게 하자.
봉사의 중심에 복음이 있게 하자.
우리 자녀들의 가슴에 복음을 심어주자.
그리고 우리 교회 문밖에
아직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바라보자.

우리 주변에는 아직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있다.
상처받은 사람이 있다.
교회에 실망하여 떠난 사람이 있다.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
죄책감에 눌려 있는 사람이 있다.
죽음이 두려운 사람이 있다.
겉으로는 괜찮아 보이지만
속으로 무너져 있는 사람이 있다.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이 자리에 두셨다.

그러므로 우리가 다시 고백하자.

우리의 존재 목적은

- 한 사람이라도 더 은혜의 복음을 듣게 하는 교회이다.

우리의 방향은

- 복음이 선포되는 예배
- 복음을 가르치는 양육
- 복음을 나누는 소그룹
- 복음 전파를 돕는 선교
- 복음을 실천하는 봉사
- 복음의 대를 잇는 다음세대이다.

그리고 모든 성도가 이 질문을 가슴에 품고 살아가면 좋겠다.

“하나님께서 오늘 나를 통해 복음을 듣게 하실
한 사람은 누구인가?”

그 한 사람을 찾고,
그 한 사람을 사랑하고,
그 한 사람을 위해 기도하고,
그 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되자.

한 사람이 한 사람을 품고,
그 사람이 다시 한 사람을 품으며,
복음이 한 세대에서 다음 세대로,
우리 지역에서 다른 지역으로,
우리나라에서 땅끝까지 흘러가게 하자.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교회의 길이며,
우리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이다.

“한 사람이라도 더 은혜의 복음을 듣게 하는 교회.”
바로 이것이 우리가 함께 걸어가야 할 길이다.



JESUS CHRIST

대한 예수교장로회

은혜의복음교회